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13期(2026.10.23) WWW.MINGHUI.ORG

한글판 1077호 minghui.or.kr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앙절에 개막했다.

주요내용

【중국법회】 최후에 이룰수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

【중국법회】 수련의 길에서 만난 큰 시험

【중국법회】 64세에 시작한 자료점, 폭풍우 속에서 이미 18년간 피어나

【중국법회】 사람을 구하는 과정도 마음을 닦는 과정

〈목차〉

■ 해외종합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양절에 개막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5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3
---------------------------------	----

■ 수련교류

무조건 안으로 찾는 것이야말로 착실한 수련이다	15
수련생 교류 글을 읽고 느낀 점	19

■ 중국법회

최후에 이를수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	22
중생이 진상을 알고 구원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기쁨	29
수련의 길에서 만난 큰 시험	36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을 닦아 사람을 구하다	41
질투심을 닦아낸 한 차례의 수련 경험	48
손녀의 약혼 연회에서 사람 구하느라 분주했던 이야기	54
64세에 시작한 자료점, 폭풍우 속에서 이미 18년간 피어나	59
사람을 구하는 과정도 마음을 닦는 과정	69

■ 시사평론

‘14억 인구’는 사실인가 아니면 정치 구호인가?	78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앙절에 개막

[명혜망](뉴욕발)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2026년 10월 18일 중앙절에 막을 올렸으며, 오늘(10월 21일)로 법회 4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법회의 교류 원고는 정법 시기 대법 제자들이 사명을 늘 잊지 않는 동시에 ‘법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자세로 심성을 높여 온 수련 경험과 성과를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명혜망 제23회 중국법회 투고 공고는 올해 8월 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원고 모집부터 10월 18일(일) 법회 개막까지, 불과 두 달의 준비 기간에 중국 각지의 신노수련생들이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서로 도우며, 정법 시기 대법 제자로서 사부님께 드린 답안지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수련 향상에 대한 정리와 회고이자, 수련생 간의 상호 교류이기도 합니다.

거의 동시에, 정법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2026년 가을에는 보기 드문 법회 집중 시즌이 나타났습니다. 진행 중인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외에도, 전 세계의 대법 제자들이 앞다투어 연례 법회를 열어 서로 배우고 닦으며 다시 정진했습니다.

특히 우연히도 올해 명혜망 중국법회 개막일이 올해 대만 법회 개최일과 같았습니다. 중국 대만의 대법 제자들은 대만의 대법 제자들과 뿌리와 근원, 언어와 민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박해를 27년 넘게 겪어 왔습니다. 그들이 처한 인문(사회) 환경은 대만 사회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대법 제자들이 교류한 원고에는

여전히 낙관과 선함, 원망과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에너지와 중국 민중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타적인 정신이 가득합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명혜망에 보도된 가을 법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대만 법회, 2026년 뉴욕시 법회, 2026년 미국 필라델피아 법회, 2026년 미국 뉴저지 법회, 2026년 미국 남서부 법회(로스앤젤레스 개최), 2026년 미국 중부 법회, 2026년 영국 법회, 2026년 캐나다 대(서부) 밴쿠버 지역 법회, 2026년 캐나다 동부(오타와, 에드먼턴, 몬트리올) 법회, 2026년 미국 시애틀 법회, 2026년 호주 시드니(시드니) 명혜학교 법회, 2026년 유럽 법회, 2026년 인도네시아 법회. 7월에 발표된 것으로는 2026년 미국 수도 워싱턴 DC 총회, 2026년 미국 플로리다주 총회가 있습니다.

이상 명혜망 중국법회를 포함한 18개 지역의 연례 법회는 이 ‘정법 수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더 많은 대법 제자들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이 ‘진선인(眞·善·忍)’의 보편적 가치가 지닌 위력과 그것이 개인, 가정,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3차원 공간을 넘어서는 우주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다면 2026년 가을에 전 세계 각지의 법회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정의의 힘이 모여 일으킨 찬란함이며 선함과 강인함으로 세상은 물론 우주에까지 가져다주는 빛과 미래입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0월 18일, 대만 각 현시에서 온 670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타이베이 허핑(和平) 농구장에 모여 2026년 대만 지역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에 참가했다. 18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각자의 수련 심득을 공유했다. 발표에서 수련자들은 법공부하고 법을 외우며 일상적인 시련 속에서 어떻게 ‘진선인(眞·善·忍)’ 법리에 따라 심성을 제고했는지, 위기와 압력 앞에서 어떻게 대법을 굳게 믿고 관념을 바꿔 난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선원(神韻)을 홍보하고 일상 환경에서 착실하게 진상을 알린 체득을 교류했다. 진정성 있는 교류는 수련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0월 17일 오전, 타이베이 자유광장(自由廣場)은 눈부신 햇살 속에 대만 각지와 해외에서 온 460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질서정연한 대형으로 장관을 이루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활짝 핀 초대형 연꽃과 ‘대법(大法)’ 두 글자는 햇빛을 받아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올해의 주제는 ‘대법홍전·과정련성(大法洪傳·果正蓮成: 대법이 널리 전해지고 정과를 얻어 연꽃이 피어나다)’으로,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신념을 굳게 지키는 파룬궁수련자의 정신을 보여줬다.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으며, 수천 명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장관에 찬사를 보내는 이도 있었고, 이 행사를 통해 파룬궁과 파룬궁이 중국 본토에서 겪고 있는 박해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된 이도 있었다. 대만 파룬따파 학회 이사장 샤오쑹산(蕭松山) 교수는 “파룬따파가 1992년 전해진 이래 34년 동안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라며 “매년 열리는 대규모 글자 배열 행사는 ‘진선인’에 대한 파룬궁수련자의 확

고한 신념을 보여주며, 더 많은 시민이 이를 통해 파룬따파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온 쉬 씨는 남편과 광장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다. 글자 배열 행사를 직접 목격한 그녀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대만에서 이렇게 많은 파룬궁수련자를 처음 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대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특히 조화롭고 아주 아름다우며 매우 평온합니다. 심지어 이 장소 전체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쉬 씨는 미소를 잃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마음속 기대를 꺼냈다. “언젠가 중국에서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10월 18일, 미국 뉴욕 오렌지 카운티 파룬따파 수련심독교류회가 뉴욕주 북부 미들타운(Middletown)에서 개최됐다. 뉴욕주 북부에서 온 1200명의 파룬궁수련자가 5개 회의장에서 함께 성회에 참석했다. 19명의 수련자가 정법 수련 속에서 자신의 심득 체험을 교류했다. 그들은 속인의 관념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안으로 찾는 과정에서 심성의 승화를 깨달았다. 사람 마음의 집착을 제거하고 수련을 처음과 같이 하는 상태를 되찾은 후, 대법의 신기함을 느꼈다. 대법 항목의 상호 협력 속에서 중생구도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사명감과 절박함을 더욱 깊이 인식했다.

10월 17일, 파룬따파 시애틀 수련심독교류회가 벨뷰에서 성공적으로 열렸고, 광역 시애틀 지역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법회에 참가했다. 수련자들은 가정, 직장 및 대법 항목에 참여하며 심성을 수련한 심득을 교류했는데, 여기에는 갈등에 직면해 안으로

찾고, 이익 앞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며, 협력하는 가운데 타인을 이해하고, 수련 기회를 소중히 여겨 일상생활의 일사일념(一思一念) 속에서 자신을 착실히 수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수련자 웬디(Wendy)는 청소 회사를 차렸다. 그녀는 수련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며 매사에 성실히 임했고, 점차 고객의 신뢰를 얻어 업무도 청소에서 정원과 인테리어로 확장됐다. 회사 경영 과정은 그녀에게 심성을 수련하고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릴 기회를 제공했다.

10월 9일~10일, 제34회 애플 스크래플 페스티벌이 미국 델라웨어주 브리지빌에서 열렸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시장에 부스를 마련해 대중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공법을 가르치며,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미국 의회 하원 지도부에 S.4009 법안 표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델라웨어주 재무장관 공화당 후보이자 전 주 하원의원 마이크 라몬도 파룬궁수련자 부스를 방문했다. 그는 오랫동안 수련자들을 지지해 왔으며, 의원으로 재직하던 2024년에는 주 하원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을 규탄하고 종식하는 HCR43 결의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라몬은 부스의 수련자들에게 “매년 실천에 옮기고 평화적 시위를 견지하는 이런 불굴의 정신은 경탄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10월 13일, 필라델피아 시의원 짐 해리티와 시 행동건강 및 지적장애 서비스국은 필라델피아 시청 안뜰에서 제2회 건강박람회를 공동 개최했다. 파룬따파부스는 많은 시민의 눈길을 끌었으며, 어떤 이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알아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 자

리에서 파룬궁 공법을 배웠다. 정비사 노먼 도보는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공법을 배운 후 말했다. “기분이 좋고, 더 편안해진 느낌이 듭니다.” 해리티 의원은 파룬궁수련자의 부스를 방문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이 영상들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박해,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미국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청원서에 서명했다며, 생체 장기적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해리티 의원은 말했다. “미국으로서 우리는 세계의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말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생체 장기적출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이 허가 없이 사람을 죽여 장기를 적출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10월 12일, 캐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이 다시 워털루에 돌아와 연례 키치너-워털루 옥토버 페스트 추수감사절 퍼레이드(Kitchener-Waterloo Oktoberfest Thanksgiving Day parade)에 참가했다. 천국악단은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성왕(法輪聖王)’, ‘불은성악(佛恩聖樂)’, ‘송보(送寶)’, ‘법정건곤(法正乾坤)’을 포함한 총 8곡을 연주하며, 음악을 통해 파룬따파 ‘진선인’의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전했다. 악단이 가는 곳마다 양쪽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들을 수 있었고, 악단이 한 곡을 연주하고 난 후 환호하며 악단 단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관객들도 있었

다. 마크(Mark)는 자신이 다문화 축제와 빅토리아 공원에서 파룬따파 부스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진선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공유했다. 그는 말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이고, 사람에 대해 선의를 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했다. “‘진선인’은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하며, 모두가 조화롭게 지내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0월 10일, 벨기에 파룬궁수련자들은 다시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상업 거리로 나와 전시판을 설치하고 공법을 시연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진선인’을 핵심으로 하는 수련 이념을 소개했다. 거리를 지나던 많은 현지 시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중국공산당(중공)이 27년간 지속해 온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박해와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연이어 박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30대인 기욤 라우어스(Guillaume Lauwers)는 전시판 앞에서 한참을 머물며 관련 정보를 꼼꼼히 읽고 수련자들의 연공을 지켜본 후, 수련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가혹한 박해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장기적출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알게 된 후, 기욤은 큰 충격을 받고 즉시 박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누구도 신앙을 이유로 상처받아서 안 되며, 범죄자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누려야 하고, 더욱이 불법적으로 장기적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청원서에 서명한 것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박해를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작은 기여일지라도 박해를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올기스(Olguis)는 당일 생활의 어려움으로 기분이 우울한 상태였다. 그녀가 목적 없이 행사장을 지나가던 중 평화롭고 잔잔한 연공 음악에 이끌려 스스로 수련자들에게 다가가 연공 동작을 따라 했다. 올기스는 연공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끝날 때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동작을 전개함에 따라 상서로운 분위기에 휩싸였고 마음속으로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으며 심지어 한때 주위의 시끄러운 환경마저 잊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반드시 이곳에 와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기스는 몇 번이나 목이 메어 말하며 이번 만남을 하늘의 특별한 안배로 여겼다.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연례 ‘정신과 지식’ 박람회가 열렸다. 핀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들이 겪고 있는 박해 상황을 알렸다. 간호사 리타(Riitta)는 수련자들로부터 파룬궁의 이로움과 ‘진선인’의 가치 이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파룬궁》 책을 구매했다. 책을 산 후 그녀는 파룬궁 박해 반대를 지지하기 위해 서명할 수 있는 서명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물었다. 토요일, 주최 측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교실 하나를 배정해 정해진 시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5가지 공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보안 업무를 맡은 두 여성이 공법을 배우러 왔다. 그녀들은 수련자들에게 자신들이 이곳에 배치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현장에서 공법을 배울 기회가 생겨 매우 기뻐했으며 헬싱키 연공장 정보를 더 알아보길 희망했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아일랜드 최대 규모의 종합 건강박람회 중 하나인 ‘더블린 마인드 바디 익스피리언스(Dublin Mind B

ody Experience)’가 수도 더블린의 왕립 더블린 협회에서 열렸다. 아일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이 행사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공법을 시연했으며, ‘진선인’ 수련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평온하고 부드러운 연공 동작은 길을 가던 많은 시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수련자를 따라 연공을 한 아리엘라(Ariella)는 눈을 뜬 뒤 얼굴에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 공법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저는 평온함을 느꼈고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엘리(Elie)는 따라 배운 뒤 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공법은 정말 훌륭하고 저는 무척 마음에 듭니다!”라고 말했다.

10월 17일, 호주 시드니 북부 이스트우드(Eastwood)에서 연례행사인 그레니 스미스 축제(Granny Smith Festival)가 열렸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축제의 성대한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축제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며 아름다움과 진상을 전했다. 일부 중국인들은 진상을 알아본 후 부스에서 중공의 당, 단, 대 탈퇴를 성명했고, 어떤 중국인은 파룬궁수련자에게 자신은 매일 에포크타임스를 보며 매일 진상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천국악단, 요고팀, 선녀팀, 무용팀, 깃발팀 및 대형 꽃차가 그레니 스미스 축제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길가의 관람객들은 파룬궁수련자 대열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후 파룬궁수련자들은 무대에서 관람객들을 위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파룬궁 5장 공법을 시연하고 무용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10월 17일, 18일 제44회 ‘고토 구민 축제 중앙 축제’가 일본 도쿄도 고토구 도립 기바(木場) 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이틀 연속 행사장 밖에서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진상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잇달아 파룬궁수련자의 박해 반대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포함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규탄했다. 가토는 진상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이 이런 짓까지 하나요? 중국(중공)은 너무 나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저렇게 제멋대로 구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네덜란드인 파스칼은 중국에 장기적출 및 거래가 존재한다는 잔혹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을 몰랐습니다. 듣고 나니 너무 슬픔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10월 17일과 18일, 제53회 사카이(堺)시 축제가 일본 오사카부 사카ishi 시청 앞 시민교류광장에서 열렸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18일 무대에서 요고(腰鼓)를 공연하고 공법을 시연했다. 현장은 빈자리가 없었고, 어른과 아이 모두 따라 연공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 파룬궁수련자 위유(于有)는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고 타이라이 감옥에 감금됐다. 2026년 8월 21일, 그가 가족에 의해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불분명했고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가족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려 했으나 병원 측은 그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 출소한 지 단 7일 만인 8월 28일, 위유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향년 64세였다. 하지만 출소하기 불과 한 달 전 7월 21일, 위유의 남동생이 타이라이 감옥으로 면회를 갔다. 당시 위유는 신체가 건강했고 정신 상태가 양호했다. 남동생이 생활비를 좀 넣어주겠다고 하자 위유는 “필요 없어. 한 달만 있으면 나는 돌아가잖아”라고 말했다.

산둥성 핑두시 파룬궁수련자 리위쥬(李玉菊)는 올해 62세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26년 9월 17일, 핑두시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4년형과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2026년 1월 7일 오후, 리위쥬는 한 파룬궁수련자의 집에서 사람이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대법서적을 함께 읽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통허 파출소 및 타이산루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 1월 9일, 리위쥬는 푸둥 구치소에 감금됐다. 7월 1일, 9일 핑두시 법원은 두번 리위쥬에 대한 재판을 열었고, 공소인이 제기한 이른바 ‘범죄 증거’는 리위쥬 가족 변호인의 의심을 샀다. 그가 공소인에게 “이 자료들은 어디서 난 겁니까?”라고 묻자 공소인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대답

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났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팡정현 파룬궁수련자 우시(吳杼)는 2025년 12월 4일 팡정현 공안국 가오링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돼 먼저 하얼빈시에 부당하게 감금됐다가 잇따라 치타이허시 보리현으로 납치돼 감금 및 박해를 받았다. 2026년 10월 상순 소식에 따르면, 우시는 보리현 법원으로부터 2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현재 하얼빈시 쑹빈 감옥에 부당하게 감금돼 있다. 우시는 1971년 2월에 태어났고 지린 대학 조학센터에서 가르친 적이 있다. 우시는 파룬따파를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에게 여러 차례 납치됐고, 한 번의 부당한 강제노동과 두 번의 부당한 징역형을 받았다.

산둥성 허쩌(菏泽)시 차오(曹)현의 84세 파룬궁수련자 위즈량(余志亮)이 차오현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모함받아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고, 2026년 8월 지난 감옥으로 이송돼 계속 불법 감금돼 박해받고 있다. 가족이 그를 면회하기 위해 지난까지 급히 달려갔으나 감옥 측은 면회를 금지했다. 2026년 2월 3일(음력 12월 16일) 아침 6시, 차오현 공안국은 니지향 파출소 정·부소장 및 경찰들과 결탁해 여러 파룬궁수련자를 상대로 동시에 가택수색과 납치를 감행했다. 위즈량이 불법적인 가택수색, 납치당하고 차오현 구치소(푸렌지)에 불법 감금돼 모함받았다.

무조건 안으로 찾는 것이야말로 착실한 수련이다

글/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우리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에서 병업 고비를 겪는 수련생을 돕다가 불거진 ‘연설난법’(연설로 법을 어지럽힘) 논쟁이 수련생들 사이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수련생들이 세 가지 일을 잘하는 데 교란을 받았고, 다들 마음속으로도 몹시 초조해하고 있다. 관련된 몇몇 수련생은 모두 안으로 찾기를 원치 않고 자신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어떤 수련생이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대략적인 과정은 이러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 병업 시련에 빠진 수련생이 비교적 많았고, 여러 수련생이 이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병업 수련생을 돕기 위해 발정념을 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아주 미미했다. 올해 4월 하순, 협조인 A 수련생이 이웃 도시에서 수련생이 병업 고비를 넘도록 돕는 데 경험이 비교적 많은 C 수련생을 모셔 왔다. C가 다년간 병업에 시달린 한 수련생과 교류하게 했는데, 주된 방식은 그 수련생이 자기 상태를 말하면 귀 기울여 듣고 집착을 찾도록 도와준 다음 정념을 발하는 것이었다. 몇 차례 거치고 나자 효과가 매우 뚜렷하여 그 수련생은 정상을 회복했고, 주변 수련생들에게 비교적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A는 거의 주말마다 C를 우리 시로 초청해 병업 수련생들과 교류하게 했다. 교류에 참가하는 수련생 수는 일정하지 않았는데, 대개 3~5명이었고 가장 많을 때는 방청하는 수련생을 포함해 10여 명에 달했다. 방식은 처음 시작할 때와 같았

다. 교류에 참가한 병업 수련생들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고 대다수가 각기 다른 정도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8월에 접어들어, 우리 시의 협조인 B 수련생과 다른 몇몇 협조인은 A와 C가 병업 수련생을 돕는 행위가 ‘연설난법’으로 변질됐다고 여겼다. 그래서 A를 찾아가 이런 식의 교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주장만 고집하다가 불쾌하게 헤어졌다. 그 후 B를 비롯한 협조인들은 명혜망에서 ‘연설난법’에 관한 글들을 모아 소책자로 엮은 뒤, 우리 지역(주로 시내 각 구역이며 주변 지역까지 파급됨) 수련생들 사이에 거의 1인당 한 권씩 돌아갈 정도로 널리 배포했다. 아울러 애초에 C가 병업 수련생을 돕는 방식을 긍정했던 수련생들을 찾아가 교류하며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 A와 C의 행위가 ‘연설난법’임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지역 수련생들이 잇달아 편을 가르게 되었고, 찬성과 반대 두 파로 억지로 나뉘면서 매우 큰 파동을 일으켰다.

또 다른 일은 A가 매주 한 차례 ‘지역 종합소식’(이하 ‘종합’) 편집을 맡고 있었는데, 내용은 지역 내 박해 소식과 편집자가 고른 약간의 교류 글이었다. 앞선 일이 벌어진 뒤 B가 A를 찾아가 ‘종합’ 제작을 그만두라고 했으나 A는 거절했다. 그러자 B는 다른 이들을 조직해 ‘지역 정보’를 만들었다. 내용은 ‘종합’과 비슷하고 선정된 교류 글만 달랐다. 결국 우리 지역의 대형 이메일함에는 두 개의 지역 종합/소식지가 올라왔고, 다들 어느 것을 보아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현재 A와 B 등은 서로 상대방을, 파괴를 일삼으러 온 구세력의 안배라고 여기며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일부 수련생이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갈등을 겪는 양측은 문제를 철저히 해

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련생들 사이에 매우 큰 간격이 생겼고 다들 여전히 이 일로 교란을 받고 있다.

장황하게 말했지만,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각자 수련하고 제고할 수 있는 시련이자 기회로 제대로 보았느냐 하는 점이다.

일에 부딪히면 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갈등 앞에서, 비유하자면 당사자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 모두 자신을 굳게 고집하며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다투면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겉에서 갈등을 지켜보는 이 역시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 모두 밖을 향해, 일 속에서 시비를 가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며 편을 가르는데, 이 또한 미몽에 빠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겉에서 초조해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 구세력의 안배에 빠진 것이다.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은 갈등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찾고 자신의 사람 마음과 관념을 내려놓는 것이지, 일의 겉모습 속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서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방할하셨다.

“옳은 것은 그이고 잘못된 건 나이니 다투 게 뭐 있느냐”(홍음 3-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정정당당하게 협력을 잘하라. 누구의 생각도 가장 좋을 수 없으며, 그의 생각이 좋지 못하고, 전면적이지 못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묵묵히 그것을 잘 보충한다! 전면적으로 한다! 신은 비로소 당신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게다가 묵묵히 한 것이다! 관건은 누

가 내놓은 아이디어인가에 있지 않으며, 이 과정 중에서 누가 자신을 연마(煉)해 냈는가에 있는바, 누가 자신을 수련하면 누가 제고해 올라온다.”(2010년 뉴욕법회 설법)

이번 다툼 속에서 늘 들리는 것은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는 말뿐이며, 어느 한쪽이 안으로 찾으며 자신의 언행이 법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듣지 못했다. 어떤 수련생은 만약 그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나는 이러이러하겠다고 하거나, 그가 고치면 나도 고치겠다고 말한다. 수련생들이여, 그런 감정과 다툼 이면에 매우 강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련은 남을 닦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그 마음을 닦는 것인가?

이 다툼은 이미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법회가 많아 명혜망에 국내외 각지 대법제자들이 사람을 구함과 동시에 마음을 닦은 수련 체험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즉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비학비수하며 흥금과 시야를 넓혀야 한다. 다시는 속인처럼 일의 표면에 빠져 이리저리 다투고 시비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수련생일지라도, 최소한 스스로 즉각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하고 법을 외우도록 요구한 뒤 다시 자신에게 어떤 집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하여 제고하려 한다면 법이 있고 사부님의 법신께서도 직접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개인 층차에서의 얇은 인식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수련생 교류 글을 읽고 느낀 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집착심을 제거하려면 뿌리를 캐야 한다’에 관련된 교류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를 글로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하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거하지 못한 집착심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못마땅해하는 마음이 심합니다. 특히 남편에 대한 이 마음은 아무리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이래서 틀렸고 저 일은 저래서 잘못됐으며, 이 말은 이래서 틀렸고 저 말은 저래서 잘못됐다고 타냈습니다. 늘 남편이 잘못해 놓고도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역시 사악한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의 남을 이기려는 마음,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며, 매사를 내 뜻대로 하려는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법공부할 때면 자신과 대조해 보며 스스로의 잘못을 알았고, 남편이 심성을 높여주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에 부딪히기만 하면 통제하지 못하고 수련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남편이 심성을 높여주러 왔다는 사실도 잊은 채 또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기어코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다투려 하지 않는데도 꼭 직접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상대방의 기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냈고 나중에는 또 후회했습니다.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 손에 글자를 적기도 했습니다. ‘고(高)’라고 적어 심성을 높이는 것을, ‘구(口)’라고 적어 입을 수련하는 것을,

‘인(忍)’이라고 적어 참고 양보하는 것을 뜻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심성을 잘 지키자.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상 모든 일을 담담하게 보고 내려놓자.” 사람마다 각자 일하는 이념이 있으니 상대방에게 억지로 내게 맞추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을 잘 못하는 모습만 보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이것이 말로 내뱉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척 괴로웠습니다. 심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되고, 사부님께서 안배해 주신 수련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며, 세세생생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고 중생을 제도해 주신 사부님의 고심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집착을 찾는 수련생의 교류 글을 읽고 역시 깨달음을 얻어 뿌리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집은 6남매에 조부모님까지 총 10식구라 하루하루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각자 의자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우리집에는 없었습니다. 글씨를 쓸 때면 공책을 다리 위에 올려놓고 써야만 했고, 반 친구들은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집안이 가난한 것을 원망했습니다. 학교에서 공구를 챙겨 노동에 참가하라고 했을 때도 집에 공구가 없어 학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또 집이 가난한 것을 원망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학비조차 낼 형편이 안 돼 시름에 잠겨 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야단을 쳤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유난히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당시 남동생들이 아직 어렸기에 12살 때부터 물지계를 저

야 했습니다. 식구가 많으니 물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했는데 우물이 깊고 물통이 무거워 정말 무서웠습니다. 돼지우리를 치우고, 맷돌을 돌리며, 돼지 먹일 풀을 베는 등 원래 남자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여자아이인 제가 다 해야 했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설이 되면 다른 집 아이들은 모두 새 옷을 샀지만, 우리집은 아이가 많고 가난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새 옷 한 벌 갖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행했던 어린 시절 탓에 원망하고, 못마땅해하는 마음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 결과 결혼 후에도 제 관념에 맞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무척 어려웠던 것입니다.

법공부를 하고 안으로 찾으며 진정으로 수련인의 기준에 따라 행하면서, 저는 원망하고, 못마땅해하는 마음을 정말로 제거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잔소리가 많이 줄었어.” 남편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든 함께 상의해서 처리하게 됐고, 제 심성이 높아지자 남편도 무슨 일에 부딪히면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길은 고생을 겪고, 업을 소멸하며, 집착심을 제거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정진실수(精進實修)하며 세 가지 일을 잘해내고 사람을 많이 구해, 사부님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더 큰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최후에 이를수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

글/ 중국 후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을 얻은 지 거의 30년이 된 대법제자입니다. 제 수련 과정을 돌아보면 줄곧 세 가지 일을 해오긴 했지만, 정진하는 대법제자와는 거리가 한참 멍니다. 수련에 태만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악의 교란과 박해를 받게 됐고, 수련의 엄숙함과 대법제자의 책임이 중대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최근의 수련 체득을 교류하려 하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다

작년 9월 어느 날 아침 6시경, 제가 연공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자 갑자기 6~7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들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중 한 명이 공안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 처음에는 마음이 좀 당황스럽고 어지러워 ‘어디에 누락이 있어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혔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정념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입니다. 누락이 있더라도 구세력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사

부님께서 이 박해를 인정하지 않으시니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이 경찰들은 구원하고 구원받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경찰들에 대한 자비심이 솟아나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왜 우리집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은 타지에서 누군가가 저를 신고했다며 공안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가겠다고 하자 그들은 오늘 안 가려야 안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지 파출소와 국보대대 인원이었고, 몇 명은 타지에서 온 국보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당신들을 찾아 진상을 알리려 해도 못 찾았는데 대법제자는 어디서든 사람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저를 공안국으로 보내려 했고, 저는 차에 타자마자 정념을 발하며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청했습니다. 공안국에 다다를 무렵 그들은 전화를 받더니 다시 차를 돌려 파출소로 간다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 아침부터 오후까지 온종일, 저는 그들이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는데 썼습니다. 파출소 직원의 대부분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파룬궁이 합법이라는 것, 전통문화에서 선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이치, 그리고 구이저우 장자석(藏字石: 중국공산당이 멸망한다고 기록된 고대의 예언석)의 천기, 대법이 해외에서 널리 전해지는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들은 모두 듣고 있었고 아무도 제 말을 막거나 끊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수업하러 온 거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들은 모두 청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법 제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 곧 자신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에게는 총구를 1cm 높여 쏠 권한이 있습니다.”

전체 장(場)이 매우 상서로웠고 사부님께서 곁에서 저를 가지 해주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중간에 말이 끊길 때면 저는 정념을 발해 경찰을 조종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모든 사악한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타지에서 온 세 명의 국보 직원들은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 나이가 좀 지긋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악질 경찰’ 같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선량한 분입니다.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짐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상을 깨닫고 정말로 총구를 1cm 높여 저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집으로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현지 국보 대장이 왔고, 저녁 7시가 넘자 그들은 제가 자료를 배포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핑계로 어떠한 자백이나 서명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10일간 불법으로 구류했습니다.

2. 구류소에서 인연 있는 사람을 구하다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는 동안, 저는 사부님의 법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몸이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라 정념정행하면 법이 있도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집착한 일 얼마이더냐 사람 마음을 덜면 악은 스스로 패하리라”(홍음2-슬퍼하지 말라). 저는 저

의 사람 마음과 수련에 누락이 있어 사악에게 꼬투리를 잡혀 이곳에 갇힌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제자는 구세력의 배치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수련에 누락이 있더라도 대법 안에서 바로잡아야만 하고 대법제자는 어디서든 세 가지 일을 잘해야 합니다.

같은 감방에 갇힌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제가 파룬궁을 연공한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들에게 파룬궁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것과 대법제자는 모두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매우 선량했고 저를 동정했습니다. 바닥이 더러운 것을 보고 저는 자발적으로 걸레로 감방 바닥을 깨끗이 닦고 누렇게 변한 변기를 못 쓰는 칫솔로 하얗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도박으로 들어온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연공하는 사람은 남들과 확실히 다르네요. 당신이 오니까 여기가 다 깨끗해졌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온종일 여기 있어야 하잖아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기분도 좀 나아지니까요.” 이렇게 저는 그녀들과 아주 화기애애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녀들에게 대법이 세상 사람을 구하는 불법(佛法)이라고 알려주었고, 또 모두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시켜주었습니다. 4명은 타지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들이 모두 구원받도록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인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갈등으로 들어온 한 식당 여사장은 저를 따라 연공 동작을 배우려 했습니다. 이틀 뒤에 두 명이 더 들어왔는데, 제가 권해 그녀들도 탈퇴시켰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저는 연공을 시작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장시간 정념을 발하고 법을 외웠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마침 근거리에서 정념을 발해 공안국과 구치소의 악인들을 조종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모든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종종 사부님의 가지를 느껴 몸이 에너지 장에 둘러싸인 것 같았습니다. 구류소 경찰들은 저를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다를 떠는 수감자들에게 “조용히 해, 저 사람 연공하는 데 방해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공간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사악한 요소가 이미 매우 적어졌기에 대법제자의 정념만 충분하다면 그들은 감히 악행을 저지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비해 대법을 처음 박해하기 시작한 몇 년간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구류소에서 연공할 때 그 경찰들은 매우 흉악하게 굴었고 우리를 때리며 연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법제자들과 부딪치면서 그들도 우리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단지 구세력이 안배한 그 낡은 기제(機制)가 여전히 돌아가며 박해의 형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 진상을 아는 경찰들은 대법제자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3. 법 암기의 체득

돌아온 이후 저는 지난 몇 년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비록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하지 않았고 일하는 것을 수련으로 여겼으며 법공부를 할 때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정념을 발하고 법공부 할 때 자주 손바닥이 쓰러지거나 몽롱해졌고 조급한 마음과 과시심도 여전히 심각했으며, 스스로 정념이 있다고 여겨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가족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쟁투심과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을 수련해 버리지 못한 것이고, 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바로 자아에 집착하고 남을 얹잡아보는 질투심이었습니다. 구세력이 이런 꼬투리를 잡아 경찰을 이용해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 교훈을 거치며 저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제 수련 상태를 철저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법 속에 용해해야만 비로소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에서 납치돼 갔기 때문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갇힐까 봐 밖으로 법공부를 하러 나가지 못하게 해서 저는 집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을 외우려 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 ‘전법륜(轉法輪)’을 외운 적이 있었지만 제3강까지 외우다가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뒤를 외우면 앞을 잊어버리니 차라리 통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수천 번을 통독했지만 매일 임무를 완수하듯 했고, 때로는 입으로는 법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으며 수마(睡魔)에 교란받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부님과 법을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법의 함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수련생들의 ‘꾸준히 법을 외우다’라는 교류 녹음을 들어보니 70~80대 노년 수련생들도 수십 번을 외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수련생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진귀한 우주대법(宇宙大法)을 이번에는 꼭 온전히 외우리라 결심했고, 이에 올해 1월 5일부터 매일 오전에는 대법 일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2~3시간씩 ‘전법륜’을 외웠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처럼 한 단락을 다 외운 후에 다음 단락을 이어서 외웠습니다.

법을 외우려면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생각이 딴 데로 흐르면 안 되기에,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저는 자주 법의 함의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외우는 것과 통독하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제4강 ‘현관설위(玄關設位)’를 읽을 때는 알 듯 말 듯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외우고 나니 뭔가 다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법을 외우다가 갑자기 온 몸을 꿰뚫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며 마치 에너지 장에 둘러싸인 듯 온몸의 세포가 법 속에 녹아드는 것 같아 매우 편안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념을 발하고 연공하는 상태도 뚜렷이 호전돼 손바닥이 쓰러지거나 몽롱해지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을 외우니 저의 주의식(主意識)이 맑아져서 외부의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고 뇌와 생각이 훨씬 청정해졌습니다. 법을 외우는 것이 깊어짐에 따라서 법리의 드러남도 갈수록 많아졌고 수련 상태도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진작 법을 외우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3시간 정도 법을 외우는데 지금까지 5번을 다 외웠고 법을 외워서 얻는 수확이 너무나 크다고 느낍니다. 정념을 발할 때 에너지 장이 매우 강한 것을 뚜렷이 느끼고 생각 속의 잡념이 줄었으며, 우리집 환경도 상서로워졌고 주변의 교란도 사라졌습니다.

맺음말

예전에는 법공부를 마음에 담지 않았고 일을 하는 것을 수련으로 여겼으며 법으로 자신의 일사일념을 가늠하지 않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밖을 보며 늘 남의 탓으로 돌리고 사람 마음으로 문제를 대했습니다. 또한 안일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해 장기간 정념을 발할 때 손바닥이 쓰러졌고 이로 인해 사악에게 꼬투리를 잡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법시기가 이미 최후에 이르렀고,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당으로 종결의 시간을 거듭 연장해주고 계십니

다. 대법제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정법시기의 수련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 속에서 자신을 바로잡고 마지막에 이를수록 더욱 정진하며 수련해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중생이 진상을 알고 구원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기쁨

글/ 중국 지린성 대법제자 리메이(李梅)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펜을 들어 글을 쓰고, 이후 시간을 내어 다른 수련생들의 원고 정리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수련생들은 모두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원고 작성과 투고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두가 원고모집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겨, 몇 년 전까지 원고를 써보지 않았던 수련생들도 전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대법에 감사드리는 마음과 정진하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련 체득을 써내어 대법을 실증하려 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측면에서 저의 수련 체득을 이야기하며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1. 신경문 외우기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저는 명혜망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이 세 편의 경문을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저에게 외우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법제자로서 저는 정진해야 하기에 이 세 편의 경문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두 달 23일이란 시간을 들여 연달아 두 번을 다 외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부님의 주요 저술인 ‘전법륜(轉法輪)’을 외우는 것도 멈추지 않았으며, 현재 제3강 ‘반수(返修)와 차공(借功)’ 단락까지 외웠습니다. 법을 외우는 것은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외우고 시간이 적으면 조금 적게 외우지만, 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이므로 조건 없이 대법에 동화해야 하며, 계속 외워 나갈 것입니다.

매번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해 다운로드를 마칠 때면, 저는 모두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공부합니다. 총 52권의 책인데, 이미 20번째 책인 ‘파룬따파(法輪大法) 캐나다법회 설법’까지 보았고, 펜으로 몇 페이지까지 보았는지 기록해 두어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제 이 신체라는 용기에 법을 더 많이 담으려 합니다.

2. 발정념을 할 때의 체득

올해 5월 31일 오후, 저는 1시간 동안 발정념을 했는데, 뚜렷하게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느꼈으며, 조금도 졸리지 않고 이성이 깨어 있었으며 머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발정념을 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 수련생과 협력해 릴레이 식으로 1시간 동안 발정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정념을

할 때는 순수하고 힘이 집중됐으며, 잡념이 없이 내보낸 공의 위력이 비할 데 없어, 힘이 산도 쪼갤 수 있을 것 같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목을 바르게 한 표준 자세였으며, 한 줄기 힘이 저를 꼼짝도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 생각과 손이 조금이라도 빗나갔다면, 설령 부추 잎만큼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저는 잠들어 버렸을 테지만, 손바닥이 쓰러지지 않고 마치 고정된 것 같았으며, 힘이 매우 충만하고 그 기세를 막을 수 없어, 산을 밀어내고 바다를 뒤엎을 듯한 기세가 있었으며, 게다가 1시간 동안 줄곧 이랬기에 저 스스로도 정념이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오후 1시간씩 발정념을 했고, 이렇게 한동안 꾸준히 견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해나가기만 한다면 사부님께서는 곧 제자를 가지해 주시고 제자를 도와주십니다. 제자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3. 중생이 진상을 알고 구원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기쁨

7월의 어느 날, 친척 남동생과 올케가 우리집에 왔습니다. 이전에도 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올케에게 진상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올케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외지에서 일하느라 자주 오지 않았기에 저는 말하지 않았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에 저는 속으로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놓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올케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와서 저는 올케를 다른 방으로 불렀고, 제가 말하자마자 올케는 곧바로 동의하며 중국공산당(중공) 공청단과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으며, 아울러 올케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올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가 “오늘

헛걸음하지 않았네. 축복해”라고 말하자 올케는 웃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이렇게 큰일은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 방면에서 스스로 잘하지 못했다고 느꼈고, 며칠 동안 한 사람도 탈퇴시키지 못하자 저는 방법을 생각하며 기회를 만들어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날, 저는 생수병 하나를 챙겨 들고 한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을 보았는데, 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폐지와 플라스틱 병이 들어있는 엷은 자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다가가 저는 생수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폐품을 주우시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 꼭 주워야 하는 건 아니고, 눈에 띄면 좀 줍고 안 띄면 안 줍습니다. 요즘 줍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적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주워요.” 제가 병을 하나 주겠다고 하자 그는 병을 받아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복음을 하나 전해 드릴게요, 좋은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는 “음”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자 처음에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에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붉은 스카프는 다들 매 보지 않았냐고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데, 벌써 다 잊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 조직이니 마음속으로 탈퇴하겠다는 일념을 내어 평안을 지키세요.” 그는 “그러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함을 묻자 그는 저에게 진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또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계속 노력해서 잘 해나가 이곳의 중생을 구하려 합니다.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중생이

진상을 알고 구원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4. 고비마다 또 고비를 넘기다

사부님께서는 “고비마다 반드시 넘어야 하는데 곳곳마다 마(魔)로다 백 가지 고생 한꺼번에 내리거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노라”(홍음-마음고생)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여 전, 저는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커터칼로 발 매트를 자르다가 단번에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손톱이 한 조각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수련생의 메모리카드 두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가방 안에 넣었는데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컴퓨터에 고장이 났습니다. 다른 수련생의 컴퓨터를 먼저 빌려 쓰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수련생은 집에 일이 생겨 오지 못했습니다. 그 주의 ‘명혜주간’을 어떤 수련생이 컴퓨터로 옮겨 왔는데, 옮기고 나니 전부 영어였고 (중국어)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또 저에게 화장실에 갈 때 문을 닫지 않는다며 이 나쁜 습관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한번은 화장실에 갈 때 ‘왕’ 하고 단번에 발로 문틀을 차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나 슈퍼마켓에 가서 산 채소를 보관함에 넣으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맨 아래 보관함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채소 봉투를 집어넣었고, 다 넣고 나서야 제 손에 있는 보관함 영수증 번호가 3번이고 아래쪽 보관함인 6번이 아님을 발견했으며, 다시 직원을 찾아 보관함을 열고서야 채소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치통이 있었고 열흘 넘게 아팠습니다.

아무튼 정말이지 걸음마다 고비였으며, 한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발정념을 했습니다. ‘만약 교란이

라면 여기서 끝내라, 어떤 형식으로든 정법시기 대법제자를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7월 초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해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지며 어두웠던 상황이 밝아졌습니다.

손이 베일 당시 남편은 집에서 한창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조금도 관심을 가지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돌려 이 순간 제 사람 마음을 살펴보고, 살펴보니 이것은 정(情)이고, 집착이며 추구하는 마음이었고,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구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색욕심, 원망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심이라면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잘해주어야 하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며 ‘진선인’에 동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손이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방금 아주 잠깐만 아팠을 뿐 다시는 아프지 않았고 아주 빨리 나았습니다.

이어서 수련생의 작은 메모리카드 두 개를 잃어버린 후를 말하자면, 저는 조금하고 화가 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령 돈을 잃어버렸다 해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이 카드는 어찌지?’ 저는 발정념을 하여 운반공(搬運功)의 공능 형식으로 작은 카드를 다시 옮겨오게 했고, 아울러 사부님께 정념을 가지해 주십사 청했습니다. 이틀 동안 발정념을 했고 2주의 시간이 지나, 작은 카드를 다른 수련생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닐봉지 하나에 우산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집에 두고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 후 타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연달아 며칠이 지나 돌아온 후 주머니 안의 우산을 꺼냈는데 주머니 안에 웬지 뭔가 있는 것 같아 손으로 만져보고 꺼내어 보니 바로

두 개의 작은 카드였습니다. 수련생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수련생 것일 텐데, 그가 언제 내 이 주머니에 넣었을까?’ 다음 날 수련생은 한 수련생에게 물으러 갔고, 그 수련생은 제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자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사람을 찾아 고치려 했지만 이틀 동안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연공을 했는데, 제2장 공법 포륜(抱輪)을 연마할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새롭게 장착하고 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것은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저는 5장 공법을 다 연마하고 밥을 짓고 치운 후에, 컴퓨터를 꺼내어 그대로 한 번 해보았더니 잘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이어서 말하자면, 그 주 ‘명혜주간’이 컴퓨터에서 영문으로만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영문 부분을 한 번 누르자 중국어 내용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갈 때 문을 닫지 않는다며 지적했을 때 저는 예전에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번에 저는 “반드시 고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문을 닫지 않는 일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한 번 발로 문틀을 찬 일, 이 일은 여태껏 없었는데 바로 그날 찼던 것입니다. 제 치아도 더는 아프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 또 하나의 성가신 일들이 발생한 후부터 해결되기까

지의 과정에서 저는 수련을 했고, 모두 좋은 일이었으며 제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매일 세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무척 정상적이고 무척 평온한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인터넷 신호가 특히 좋았는데, 3개의 창문, 5~6개의 서버에 초록색의 긴 선이 아주 높아서 모두 위쪽까지 거의 닿을 뻔하여 너무나 장관이었고 다운로드 속도가 날듯이 빨랐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비할 바 없이 행복했으며, 이때는 오직 ‘정진하자! 다시 정진하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련에서 제가 정진할 때 모든 것은 모두 아주 순조롭게 변합니다. 어떤 때는 불가사의하다고 느끼며, 대법 속에서 수련하는 것은 너무나 신묘합니다. 창세주께서 제게 내려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저의 수련 체득이며, 명혜망 수련생들께서 도와서 검토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은 신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수련의 길에서 만난 큰 시험

글/ 허베이성 바오딩시 대법제자

[명혜망] 3년 전, 어머니(수련생)가 저희 집에서 실수로 넘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체격이 아주 뚱뚱하신 편이라 저는 심하게

넘어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사부님, 제발 제 다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걷지 못하면 어떡해요…”

저는 이것이 박해이므로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를 잠시 진정시켜 드린 뒤 방석을 가져와 천천히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후 저는 강도를 높여 어머니와 함께 법공부를 하고 정념을 내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발과 다리에 든 멍은 점차 사라졌지만 다리는 여전히 부어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좀 어떠세요?” 어머니는 매우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어… 뜨거운 물로 찜질이라도 해봐야겠다.” 속으로 약간 망설였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뜻에 따라 뜨거운 물과 수건을 가져다드렸습니다.

저와 어머니, 아버지 세 사람은 모두 1998년에 법을 얻어 수련을 시작해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납치, 구타, 강제노동, 징역형을 겪으신 후 2017년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줄곧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저도 안으로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구세력이 강요한 박해임을 뻔히 알면서도 왜 박해를 당하게 된 걸까? 제게 먼저 누락이나 집착이 있었기에 구세력이 틈을 탄 것이다!’

계속 안으로 찾아보니 가장 먼저 어머니에 대한 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게는 ‘이제 어

머니 한 분뿐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 잘 보살펴야 해!’라는 일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속인으로 여기고 효도를 다하느라 자신이 대법제자임을 잊었고 어머니 역시 수련인임을 잊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퇴직 교사로 매월 약 5천여 위안의 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관계를 바르게 놓지 못했기에, 이미 출가한 여동생은 제가 10년 가까이 모신 것을 대가로 어머니에게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여겨 원망심과 불공평하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후 저는 이런 혈육의 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마다 눈에 거슬렸습니다. 겉으로 다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일상적인 작은 일들로 늘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역시 저의 이런 불만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저희 두 사람은 법공부와 연공도 각자 알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수련생 사이에 장벽이 생겨 각자 마음을 닦지 않았고 작은 정체(整體, 공동체)를 잘 형성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구세력이 틈을 타 박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신 지 10여 일 후, 여동생은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제 심성이 부족해 귀신에 홀린 듯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 집에 도착한 다음 날, 여동생과 매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발목 골절이라며 곧바로 석고 깁스를 했고, 먹는 약과 바르는 약도 잔뜩 받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들 마음속에 제가 ‘천고의 죄인’이 됐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동생은 굳은 얼굴로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어

머니의 얼굴에도 원망이 가득했으며, 매제는 한술 더 떠 함부로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죽어야 괜찮아지지...”

수련하지 않는 여동생과 매제, 그리고 정념이 확고하지 못한 어머니 모두 제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은 것 등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당시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서 큰길로 나왔지만, 더는 참지 못하고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억울했던 것은, 속인인 여동생과 매제가 저를 탓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는 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가 법에 서기만 하면 이 시련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당시 어머니의 심성을 제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고 당시 어머니는 넘어지신 일을 이미 속인의 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의사 지시에 아주 잘 따르며 곧이곧대로 지시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 집에서 저희는 꼬박 45일을 머물렀고 어머니의 발 깁스를 풀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수련생 사이에 제 때 체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시에 제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상태를 보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나중에 여동생과 매제가 대법에 대해 그토록 큰 원망심을 품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식을 어머니에게 강요했고, 어머니가

시련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정념으로 고비를 넘기려 하시는지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언행을 보면 넘어지신 일에 대한 정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막 넘어지셨을 때 “사부님 도와주세요, 걷지 못하면 어떡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대법제자로서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나는 대법제자이니 넘어진 것쯤은 아무렇지 않아. 반드시 걸을 수 있어. 대법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고 법을 실증해야 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걷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득실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찜질을 요구하셨을 때, 이미 당신을 속인으로 여기신 것인데, 저는 여전히 제 생각에 빠져 어머니가 정념으로 고비를 넘기실 수 있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나더러 무엇을 닦으라는 것일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판단 착오가 뒤이은 일련의 번거로운 일(갈등 고조)을 초래한 것입니다.

모든 수련생이 사부님과 법에 대한 굳은 믿음 하나로 오늘까지 걸어온 것은 이미 대단한 일이지만, 종종 자신의 집착을 제거할 때는 여전히 미혹되기도 합니다! 이번 갈등은 제게 수련생을 선하게 대하고 서로 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고 착실하게 매 걸음을 잘 걸어가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희 대법제자들이 견고한 정체를 형성해 법을 실증하는 길에서 더 많은 법의 위력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을 닦아 사람을 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법을 얻는 것을 보았고, 청년 시절에 저 스스로 수련에 들어섰으며, 어느덧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22년간 수련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아, 고대 건축물이나 옛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까닭 없이 좋았고 무척 친숙하게 느껴졌으며, 좋은 글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머리(대뇌)가 아니라 가슴(심장)으로 문제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한번은 책에서 ‘사람은 대뇌로 문제를 생각한다’라고 적힌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닌데, 나는 왜 가슴으로 생각하지?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대뇌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법을 얻은 그 몇 년간은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사회와 접촉이 적었고, 내면이 아주 단순했으며 명예와 이익에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세상물정도 잘 몰랐고, 동시에 어머니를 큰 나무처럼 의지했기에 스스로 수련을 꽤 잘하고 있다고 여겼으며 세 가지 일도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마음 닦는 것이 부족했고, 단지 선천적인 약간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과 근기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도 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가정환경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비틀거리며 걸어왔는데, 여기서

는 주로 제 최근 5년간의 수련 상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날 중국 사회는 깊이 빠져보지 않고서는 그 부패한 정도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회에서 해마다 날마다 생활하고 일하는 수련인, 특히 젊은 수련인이 이 지극히 현실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오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오염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되돌아가 수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생까지 구해야 하니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1. 반복해서 마음을 닦다

2021년, 저는 한 차례 큰 심성 고비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치 어느 수련생이 교류 글 ‘26번의 전투’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비 넘기를 포기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했는데 고난 속에서 여전히 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핵심은 이 몇 년간 착실한 수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었지만 내면은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고, 사람의 관념이 여전히 아주 무거웠습니다. 저 자신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련은 정체될 수 없으며, 길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각종 집착심이 제 발걸음을 막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심과 오만함이었습니다. 본래 직장에서 속인과 발생한 이 갈등은 제 집착심, 특히 질투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등에 직면하고 악연을 선해(善解)하지 않

은 채 도피를 선택해 그 속인을 멀리했습니다. 수련해 없애야 할 질투심은 없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팽창했습니다. 그것은 오만함, 쟁투심, 원망심과 뒤엉켜 거의 저를 통제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저는 오만방자해져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지?’ 나중에 ‘서유기’를 읽어보니, 손오공이 처음에 선도(仙道)를 찾아다닐 때는 매우 겸손하고 마음을 비웠으나, 나중에는 천궁을 뒤집어엎고 스스로 제천대성(齊天大聖)이라 칭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컸을까요? 그가 72가지 둔갑술을 배우고 하늘을 날고 땅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생겼다면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중년이 되어 직업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끼며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리훙쯔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소 아주 좋으며, 속인사회 중에서 무슨 능력이 없을 때, 그의 명리심은 아주 담담하다. 일단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때면, 흔히 명리적인 교란을 받기 쉬운데, 그는 남은 생애에 아직 먼 길이 있다고 느껴, 더욱 보람차게 해보려 하며, 한번 분투하여 속인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후 거듭 법을 외우고 반복해서 마음을 닦고 나서야 이 질투심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뒤집혀 나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2024년 ‘20년간 질투심을 제거한 경험’이라는 글에서 상세히 서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2024년 초,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어찌다 보니 어느 오래된 사당 문 앞에 이르게 됐

는데, 눈을 들어보니 길 왼쪽에는 닭 떼를 가둬 기르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놀랍게도 아주 굵고 긴 커다란 검은 뱀 한 마리를 가둬 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몹시 두려워 재빨리 뒤돌아 도망쳤는데, 그 커다란 검은 뱀이 뒤에서 날아오듯 쫓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따라잡힐 것 같던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마음속으로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날 밤 한 수련생이 우리집 근처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사악에게 납치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제 공간장이 순수하지 못해 자비로운 장을 형성하지 못해서 수련생이 우리집 근처에서 박해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발정념을 강화했지만 두려운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고, 각종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왔으며, 특히 크고 작은 거리와 주택의 스마트 도어록에 달린 CCTV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제가 사람을 구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저는 무척 괴로워하며 반복해서 법을 외웠지만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문득 사부님의 최근 경문을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험악을 멀리하라’, ‘법난(法難)’, ‘대법수련은 엄숙한 것이다’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우고 또 외우는 이 과정에서 저는 뜻밖에도 두려운 마음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발견했고, 마음도 더는 무겁지 않아 마음속 깊이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시 나가 사람 구하는 일을 할 때 더욱 이성적이고 지혜로워졌으며, 두려운 마음이 그리 무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일심입니다. 이 집착은 제가 최근에야 그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데, 게다가 그것이 뜻밖에도 제 근본적인 집착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며칠 전 명혜망 모임집 ‘안일심을 수련해 버리다’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법을 얻었을 때 ‘정진요지2-정법시기 대법제자’를 읽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정법제자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현재의 마난(魔難)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없으며 인간 세상의 안일(安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끌려 사오(邪悟)할 것이다. 사부는 떨어져 내려간 그러한 사람들을 줄곧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수가 이런 마음에 이끌려 망가진 것이다.” 당시 이 단락의 법을 읽고, 저는 왜 안일심에 이끌려 휘멸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일을 잘하지 못한 것은 모두 안일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수련에 들어선 것은 사부님의 모든 설법을 읽고 난 후였는데, 당시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대도태가 오면 나는 휘멸되는 게 아닌가? 수련해야겠다. 게다가 박해가 곧 끝날 테니,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돼. 부처를 수련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는 그냥 어머니의 세계에 가서 한 명의 중생이 되면 그만이야.’ 당시에 바로 이처럼 고생하기 싫어하고 기회를 엿보며 요령을 피우는 안일심을 품고 수련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줄곧 이 안일심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른 마음들은 그 위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계속 제거해왔지만, 이 안일심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안일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생하기 싫어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것인데, 이는 수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몸이 있어야만 수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몸이 있어

야 고생할 수 있고 업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면에서 주변의 노년 수련생들과 큰 차이가 있으며, 한 걸음 더 착실히 수련해야만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해서 안으로 찾다

이것들이 제가 현재 인식할 수 있는 주요 집착들이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집착심 뒤에는 여전히 각종 현대 관념, 특히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늘 느낍니다. 저는 많은 마음의 뿌리가 모두 무신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사부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두려워할까요? 만약 수련의 길은 모두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불공평하다고 느낄까요? 만약 사람이 태어나면 일생의 길이 이미 안배돼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아이의 앞날에 집착할까요? 만약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굳게 믿는다면 안일해질까요? 만약 제가 세세생생 윤회 전생한 것이 바로 법을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수련 시간이 너무 길다고 싫어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저를 욕하고 때리는 것이 모두 저의 제고를 돕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원망할까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때때로 믿는 듯 마는 듯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 보이는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 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공부, 법공부를 강화하는 것, 법공부를 잘하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공부를 잘해야만 속인 사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고, 법공부를 잘해야만 층층의 부패된 물질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으며, 법공부를 잘해야만 착실히 수련해 올라

갈 수 있고, 진정으로 세 가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3. 구원된 생명

중생구도는 수련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또한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비록 저는 비틀거리며 수련하고 있고 매일 나가서 진상을 알리는 노년 수련생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만, 그래도 잘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진상을 알리면서 기억에 깊이 남는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은 한 젊은 친구에게 진상을 알리며 대법의 널리 전해짐과 중공의 박해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고,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했습니다. 동시에 맑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이 제도됐음을 알았습니다.

또 한번은 다른 한 젊은 친구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그는 매우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게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윤회를 믿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때 아버지와 여행을 갔는데, 누르하치 묘 앞에 이르렀을 때 무릎을 꿇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버지가 다른 곳을 구경하러 갔을 때 몰래 묘 앞으로 다시 달려와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중생이 세세생생 윤회하며 기다린 것은 바로 오늘이며, 제가 잘하지 못하면 정말로 중생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또 어떤 중생은 진상을 듣고 나서 몹시 놀라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

다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모두 진상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은 지난 5년간의 제 몇 가지 심득과 약간의 진보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진하는 수련생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지만,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더는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자아에 집착하지 않으며 안일함의 늪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고도(苦度)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며 중생의 기다림에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질투심을 닦아낸 한 차례의 수련 경험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연화(蓮花)

[명혜망] 저는 노년 대법제자이며, 남편은 저보다 몇 살 어립니다. 그는 비록 수련하지 않지만 제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을 매우 지지합니다. 아들과 딸은 독립해서 살고 있고, 평소에 저희 노부부는 순리대로 평온하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년간 사부님의 정법시기를 바짝 따라가며, ‘세 가지 일’을 잘 하기 위해 노력했고, 법공부, 법 암기, 심성 수련을 하며 새벽 3시 10분에 다섯 가지 공법 연공을 마쳤습니다. 비가 오거나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밖으로 나가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오후에는 집에서 법공부를 하는 것을 견지했습니다. 또 매주 두 번 저희 집에서 단체 법공부를 하는 것도 견지했습니다. 남편은 줄곧 매우 지지해 주었고 수련생들에게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석 달 전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게 갑자기 남편에 대한 아주 강한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법공부 중에 사부님께서 하신 “당신들이 명(名)·이(利)·정(情)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들은 비로소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정진요지)라는 말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아래에 이 극도로 고통스러웠던 수련 과정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갑자기 폭발한 갈등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어 무료해했습니다. 올봄, 그는 저희 집 맞은편에 상가 방 하나를 임대해 찻집을 열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며, 때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가끔 그들에게 요리를 몇 가지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속옷까지 제가 빨아 주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차를 몰고 나가 밥을 먹고, 산천을 유람하며 놀았습니다. 저도 같이 나가기를 바랐지만 시간을 낭비할까 봐 두려워 가끔 몇 번 갈 뿐이었고,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모든 집안일을 잘해 놓으며, 수련인의 ‘세 가지 일’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는 뇌경색에 두 번이나 걸렸지만, 대법의 보호 아래 몸이 아주 잘 회복돼 차를 몰고 수백 킬로미터를 왕복해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는 그 찻집에서 하루 종일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을 보다가, 그저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찻집의 오른쪽 이웃은 이혼한 30대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 할 일이 없으면 저희 집 찻집에 와서 놀았습니다. 저희 집 빗자루, 대걸레 등을 마음대로 쓰고는 다 쓴 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일 청소를 하러 갈 때면 그녀 집에 가서 가져와야 했기에 조금 반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그녀가 쓰고 나면 돌려주라고 말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아예 그녀에게 빗자루, 대걸레 한 세트를 주어 버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단둘이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때로는 남편에게 “저 여자는 이혼한 여자이니 자주 단둘이 놀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남들이 보면 비웃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몇 번은 밖에서 진상을 알리고 돌아와 먼저 찻집에 가서 열기를 식히려다가, 또 그들이 단둘이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씹쓸해지면서 온갖 잡념이 들었고 질투심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온 것을 보고는 가 버렸습니다. 저도 싸늘하게 몇 마디 던지고는 가 버렸고, 마음속에는 반감이 가득 찼습니다.

갈등의 고조

저녁에 딸이 저희 집에 왔다가 제 언짢은 표정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본래 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인이 저희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딸이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자기 이웃의 70대 장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이혼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장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 아랫집의 이혼한 여자와 눈이 맞아 할머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딸은 또 “요즘 여자들은 돈 있는 노인들을 꼬셔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편이 돈을 모두 그 여자에게 쓴 것은 아닌지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도 돈을 속여 뺏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즉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일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세파에 휩쓸리지 말라며 남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남편이 집에 밥을 먹으러 와서 제게 “당신이 메시지로 딸네 이웃 장 할아버지가 어떻다고 한 게 무슨 소리야?”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또 그 일을 한 번 더 말하자 그는 젓가락을 내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할망구 꼴좋네, 자업자득이지. 영감을 그렇게 달달 볶아대니 버림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말을 마친 후 밥도 먹지 않고 문을 콧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다, 일이 커져 수습할 수 없게 됐구나.’ 이어서 머리가 몽롱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제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 일이 터지게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을 닦고 잘못을 인정하다

당시 질투심에 이끌려 제 머리는 맑지 않았고, 질투심, 의심, 색욕심, 이의심, 부부의 정이 모두 뒤집혀 나왔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혼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월급이 있고, 딸도 제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제가 남편과 그 여자를 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사부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부님 법상(法像)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사부님께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머릿속에서 ‘얼른 잘못을 인정해라’라는 한 마디 말이 떠올랐습니다.

즉시 층계를 뛰어내려가 찻집으로 가서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진심으로 남편에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오해했으니 제발 화내지 마요.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다 내가 의심이 많아 너무 많이 생각한 탓이에요. 그리고 내 월급을 나 혼자 보관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그 돈은 모두 우리 둘의 공동 재산인데, 당신이 낭비할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둘이 공동으로 보관할 테니, 쓰고 싶으면 쓰도록 해요.”

남편은 듣고 나서 제게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나는 장 할아버지와 달라. 나는 퇴직 간부로서 그래도 교양이 있단 말이야. 그 시절, 당신이 감금돼 박해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때 남들이 다 이혼하라고 권했지만 이혼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 안심해! 나는 영원히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 시절 저는 중공 악당에게 네 번이나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박해받았는데, 매번 남편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부님의 보호와 수련생들의 도움 아래 저를 구출해 냈습니다. 그렇게 큰 고난 속에서도 저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니 그는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을 어찌 다 잊었던 말입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마땅합니다. 이 질투는 진정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구세력이 제게 강요한 것입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호히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정념을 발해 이 부패된 물질들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남편을 더욱 배려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침내 다시 화해했습니다.

후기

이후 또 많은 양의 법 암기를 하고, 수련생들과 법에서 교류하며, 사부님의 법에 따라 안으로 찾아, 많은 집착심을 찾아냈고, 그런 다음 끊임없이 정념을 발해 이 좋지 않은 물질들을 제거했

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하에 수련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이웃 여자를 향해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고 하마터면 당신을 망칠 뻔했어요.’

며칠 후, 저는 ‘천사홍복(天賜洪福)’ 한 권과 사부님의 경문 두 편을 직접 그 여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시켜 주었으며,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게 하자 그들 모두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트가 돈벌이가 되지 않아 그녀는 집에 돌아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서 밖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가 표현한 것은 제 심성을 제고하도록 돕기 위해서였구나, 정말 그녀에게 감사해야 해! 제자를 위해 많은 부패된 물질을 가져가 주신 사부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몇 번이나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입을 떼기 어렵다고 느꼈지만, 이 집착이 있는 다른 수련생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 마침내 써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들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허스(舍十)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손녀의 약혼 연회에서 사람 구하느라 분주했던 이야기

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진연(眞緣)

[명혜망] 이 글은 연로한 대법제자의 수련 경험입니다. 그가 연회에서 대략 3~4명에게만 진상을 알렸지만, 평소 진상을 알리는 일을 매우 부지런히 했기에 이번 연회를 보니 진상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지 않은 친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상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알릴 때도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의 수련 속에서 저는 늘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여겼습니다! 사부님께서 법을 전해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하는 것은 저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2026년 1월 10일은 손녀의 약혼일이었습니다. 새해가 지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연회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며 법공부의 강도를 높이고 정념을 발해 제 공간장과 연회장의 공간장을 청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慈悲(츠뻬이)는 천지에 봄이 오게 하고 정념은 세상 사람을 구하는 도다.”(홍음2-법정건곤)

연회 당일 아침, 6시 정념을 발하고 사부님께 향을 올린 뒤 저는 사부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부님께 제자의 정념을 가지

(加持)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연회에서 제자는 반드시 대법 속에서 닦아낸 자비와 선량함을 보여주고 대법을 실증하며 중생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법제자에게 부여한 것은 신의 상태이므로 당신은 신의 상태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 아주 많은 일들을 정념으로 하면 모두 잘할 수 있다.”(각지 설법3-대뉴욕지역법회 설법)

그날 식당에는 10개의 테이블이 가득 찼는데 대부분 직계 가족이었고 아들의 전우와 동창도 있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분위기가 마치 명절처럼 매우 떠들썩했습니다.

남자(손녀의 배우자) 쪽에서는 10명이 왔습니다. 남자의 할머니는 88세였고 저는 그 할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의 할머니와 부모에게는 예전에 모두 진상을 알렸고 삼퇴도 하셨기에, 저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 저는 그의 고모,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건강이 좋고 선량하며 온화해 보인다면 제게 화내는 기질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그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리고 삼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곁에서 가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느꼈고 진상을 알리고 싶은 대로 알렸으며 그녀들은 매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쪽은 모두 다 알렸고 삼퇴를 말하기 곤란했던 사람들도 대법 진상을 들었습니다. 테이블을 합칠 때 사돈과 그의 둘째 형을 우리 테이블에 앉혀 남자 쪽 가족과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의 수십 명이 모두 삼퇴를 했는데 오직 그녀의 둘째 큰아버지만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퇴직 전 어느 학교 교장이

였기에 몇 번 만났을 때도 저는 사람 마음이 있어 제대로 말하지 못해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조급해졌지만 1~2년 동안 접촉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를 구할 기회가 왔으니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마음을 움직이지 말자, 그는 구원받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일렘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에게 왜 삼퇴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고 그는 금세 삼퇴에 동의했습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잠시 식사를 한 후 저는 남자 쪽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돈어른, 천천히 많이 드세요. 저는 각 테이블을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살펴보니 접촉했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진상을 다 알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동창, 친구, 전우가 앉은 두 테이블로 갔고 다시 보니 20여 명 중 단 한 명만 진상을 듣지 못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진상을 듣고 삼퇴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명이 아들의 전우였는데 저를 ‘이모’라고 연신 부르며 테이블 안쪽에 앉아 있어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 그를 빼내 주십시오. 제가 그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한 전우가 저를 밖의 차로 억지로 끌고 가 잠시 쉬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너무 지치셨어요.”

그가 저를 끌고 갈 때 안에서 진상을 듣지 못했던 그 전우도 따라왔고 아들의 친구 한 명도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저를 차에 억지로 태우고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가서 잠시 쉬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차에 태웠던 사람은 밖으로 나갔고 진상을 듣지 못한 전우와 아들의 친구만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흥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의 전

우에게 진상을 알리며 대법의 아름다움과 대법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말하고 삼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모두 당원이었는데 기뻐하며 “탈퇴할게요, 탈퇴할게요”라고 말하고 두 손을 합장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 친구는 제게 “이모, 기회가 되면 이모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기회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 감사합니다! 모두 사부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제자는 그저 입만 움직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을 다 알리고 식당으로 돌아오니 손녀의 초등학교 동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 입당했습니다. 아이는 다정하게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아주 반갑게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그녀에게 직접 진상을 알리고 그녀가 삼퇴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할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야, 반드시 자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렴! 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켜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 할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저의 은인이십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은 어르신이십니다!” 그때는 누군지도 몰라서 그를 밀어내고 보니 며느리의 사촌 오빠였고 연회 사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큰길에서 그는 어느 운전기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왔고 두 사람은 매우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인 것을 보고 억지로 그를 밀어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나 혈떡이며 기어이 칼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야,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와 하늘이 넓게 열린단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아야 해”라며 그에게 많은 말을 해주었고 그는 결국 떠났습니다. 지금 그는 학교에서 일하며 간부이기도 한데 일찍이 진상을 알고 삼퇴를 했으니 사부님께서 그를 구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는 저를 보면 이 일을 말합니다. 저는 “애야, 앞으로는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내게 무슨 재주가 있겠니, 모두 대법 사부님께서 널 구해주신 거란다. 네가 대법 진상을 알고 삼퇴를 했기에 부처님께서 널 구하고 보호하시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남짓 연회가 끝났습니다. 남자 쪽 가족을 배웅하고 나니 우리집 친척과 하얼빈 친척만 남았는데 저녁을 먹고 가라고 붙잡았고 일부는 집에 일이 있어 먼저 갔습니다. 시누이네도 일이 있어 먼저 가려 했는데 시누이의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정말 이기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는 걸 아시잖아요. 대법이 저를 변화시켰고 제 마음에는 어두운 면이 없이 모두 햇빛이에요. 다 보셨잖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바쁘신데 너무 늦지 않게 가세요.” 그들을 배웅하고 저녁 5시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식당에서 친척들이 다시 함께 앉았습니다. 아이의 셋째 고모가 제게 물었습니다. “올케, 안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

하시네요. 수련을 참 잘하셨어요. 저는 피곤해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나는 사부님께서 보살펴 주시잖아요”라고 말했고 시누이는 웃었습니다. 이 시누이는 대법이 좋다는 것을 가장 잘 공감했고 가장 먼저 삼퇴를 했으며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사무실 책상에 놓아두었고 평소 자주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외웁니다. 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밤 10시가 안 되어 모두 끝났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와 손녀의 친구들, 우리 모두 무척 기뻐하고 하루 동안의 모임이 즐겁고 순조로웠습니다.

손녀의 약혼 연회에서 저는 정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사명입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들 제가 매우 다정한 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은 사부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교류 원고)

64세에 시작한 자료점, 폭풍우 속에서 이미 18년간 피어나

글/ 중국 헤이룽장 대법제자

[명혜망] 자료점은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하고 중생을 구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집 가정 자료점이 오늘날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하신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에 우리가 대법의 요구에 따라 착실하게 수련하고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평온하게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부님의 정법 노정이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밖으로 나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사람을 구하는 수련생이 점점 많아졌고 진상 자료도 갈수록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해졌습니다. 수련생들이 중생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진상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고 자신의 서약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가정 자료점을 세워야겠다.’ 2008년 초, 우리집에 ‘작은 꽃(가정 자료점)’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1. 고난 속에서 제고하다

그해 저는 이미 64세였고 시골에서 자라 가정을 이룬 후 도시에 들어왔지만, 컴퓨터와 프린터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마주하니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집에 컴퓨터가 없었고 가족들이 모두 수련하지 않았기에, 제가 컴퓨터를 사려 하면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등 일련의 문제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사명이니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딸에게 “노트북 한 대 사고 싶은데 중고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컴퓨터 사서 뭐 하세요? 쓸 줄도 모르잖아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쓸 줄 모르면 배우면 되지.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우리 수련인들이 매주 ‘명혜주간(明慧週刊)’을 한 번씩 봐야 한다는 거야. 다 본 후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걸 대법 자료라 훼손하면 안 되거든. 일 년이면 수십 권이나 돼서 너무 많고 보관하기도 힘들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보고 나서 언제든 지워버리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 마음도 편하고 안전

하고.” 딸은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컴퓨터를 사는 데 동의했습니다.

수련생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저는 금방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고 인터넷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다음 단계는 진상 자료를 인쇄하는 것이었는데 아직 프린터가 없으니 어떡할까요?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침 한 자료점 수련생이 집을 수리하게 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단계로 일단 프린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밟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딸과 상의했습니다. “○○ 집이 집을 수리하는데 그 집에 프린터가 한 대 있대. 잠시 우리집에 두면 어떨까?” 딸은 “두세요, 안 될 게 뭐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프린터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프린터가 여기 있는 김에 ○○한테 인쇄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할까 해. 배워두면 그들이 바빠서 손이 모자랄 때 내가 도울 수 있잖아. 이것도 좋은 일 하는 셈이고, 또 나도 시간이 있으니까.” 당시 딸은 대답이 없었는데, 된다 안 된다 말이 없기에 묵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생이 제게 인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스스로 진상 전단과 진상 책자, 기타 진상 자료들을 인쇄할 수 있었고, 컴퓨터와 인쇄를 전혀 모르던 공백을 돌파했습니다. 제자가 진상 자료를 만들려는 마음을 보시고 사부님께서 안배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중공 악당의 사악함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대중에게 깊이 있게 진상을 알려 더 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료점에 진상 CD

와 진상 동영상(몇 년 전의 선원 공연 CD 포함) 굿기, 각종 진상 스티커, 진상 달력, 탁상달력 인쇄,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진상 편지 등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자료점이 세워진 후 운영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부딪혔습니다. 소모품 구매, 기계 고장, 운송 수단 부재 등이었습니다. 특히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 기간에는 더더욱 곤란이 겹쳤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법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부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법공부를 꾸준히 유지하며 법을 지침 삼고, 법으로 모든 바르지 않은 사상, 관념, 방법 등을 바로잡아 자료점이 기본적으로 난관을 뚫고 안정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2. 어려울 때 사부님께서 길을 일러주시다

몇 년 전, 우리 주변의 몇몇 거주 구역에 3~4개의 가정 자료점이 있어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원인으로 자료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자료 배달과 소모품 조달을 담당하던 수련생을 대체할 만한, 운전이 가능한 수련생이 없어 자료점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오랫동안 못 보았던 젊은 남자 수련생을 만났는데, 그는 예전에 한 교육 기관의 컴퓨터 교사였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그는 전염병 사태로 직장이 문을 닫아 생계를 위해 지금은 승차 공유 서비스 차량 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전 일을 하니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접촉하는 사람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승객들의 이동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진상을 알리는 내용을 정할 수 있거든요. 매일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거의 매일 빠짐없이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운전 일을 한다니 당신과 상의할 일이 하나 있어요. 현재 자료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가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료점에서 매주 몇몇 수련생에게 자료를 배달해야 하고 소모품도 들여와야 하며 때로는 기계도 고쳐야 해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대법 일이 첫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하고 이건 모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시간에 맞춰야죠. 한가할 때 해요, 어느 날이든 다 괜찮으니깐요. 시간 날 때 오세요.” 그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결정되어 큰 문제를 하나 해결했습니다.

약 2주가 지난 뒤, 운전기사 수련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저는 줄곧 혼자 수련하는 상태였고 정체(整體, 수련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했어요. 아주머니네 법공부 팀에 들어가 단체 법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매주 하루밖에 시간을 못 내지만 어느 팀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잘됐네요! 단체 법공부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라 수련 제고에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고 정해지면 알려줄게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사 수련생의 업무 성격상 법공부 시간이 부족할 텐데, 기왕 단체 법공부에 참여하고 싶어 하니 합리적으로 잘 안배해서 수련생이 법공부를 많이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두 법공부 팀은 이미 각각 4~5명이 있었습니다. 기사 수련생이 이 법공부 팀에

오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냈는데, 우리집에 법공부 장소를 하나 더 만들되 사람은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자료점이기 때문). 저는 정념이 비교적 강하고 수구(修口)를 잘하는 노년 수련생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같이 법공부를 합시다. 주된 목적은 기사 수련생이 단체 법공부에 참여하게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 배달이나 소모품 구매 등을 법공부 끝나고 나서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날 하루에 모든 일을 다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도 좋습니다.” 노수련생은 “그 방법 괜찮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법공부를 할까요?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법공부 팀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체 법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혼자 법공부를 하니, 기사 수련생은 운전을 하니까 아무 날이나 와서 법공부를 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기사 수련생이 왔을 때 우리 생각을 전해주자 그는 무척 기뻐하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차량 호출 주문이 좀 많고 승객도 많은 편입니다. 그 이틀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문제에서 제가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신의 단체 법공부 시간이라 이렇게 안배하면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만 했지, 기사 수련생의 실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기사 수련생 가족의 생활비, 아이 학비, 그리고 다른 지출들 모두가 그의 수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매사에 타인을 위해 배려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잘못했다면 바로잡아

다른 시간을 골라야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다시 의논하여 매주 목요일을 법공부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3인 법공부 팀이 정식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3. 전체 협조로 법 속에서 승화하다

최근 2년 동안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수련생들이 있어서, 우리는 몇 개 구역에 흩어져 자료를 받지 못하는 몇몇 수련생들을 맡아 7인의 작은 정체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6개 거주 구역에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기사 수련생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노년 여성 수련생이었는데 최고령이 86세, 가장 어린 분이 70대였습니다.

모두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에서나 마음을 닦고 안으로 찾는 데서나 비교적 정진하며 착실히 수련했습니다. 우리는 늘 사부님 말씀대로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잘 배우며 안으로 찾고 협조를 잘하여, 서로 무슨 일을 하든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 몇몇 수련생 집에 자료를 배달하는 일은 전부 두 수련생이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노수련생이 이미 80세인데 자료를 짊어지고 위아래 층을 오르내리기가 무척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수련생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힘쓰는 일은 다 앞다투어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못 하게 막으며 “언니는 언니고 제가 동생이니 어린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평범한 말이지만 대법제자의 이타적이고 사심 없는 경지를 보여주어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기사 수련생은 “필요한 소모품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자재

시장을 지나갈 때 가는 김에 사서 먼저 우리집에 뒀다가 목요일에 법공부하러 올 때 챙겨 오면 어떤 일도 지체되지 않거든요. 다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듣고 나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수련생은 전적으로 자료점의 안전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한 것입니다. 자료점 비용 문제도 우리는 이 18년 동안 한결같이 목적에 맞게 잘 처리했습니다.

올해 5월 어느 날, 한 수련생이 진상 스티커를 붙이다가 사악의 감시 카메라에 발각되어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두 달 넘게 갇혔고 나중에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쓰던 각종 자료는 모두 우리 자료점에서 공급한 것이라 그녀에게 일이 터지자 마음 속에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수련생인데 심성이 제자리에 도달하지 못해 사악이 자백을 강요할 때 나를 폭로하지 않을까?’

이 일념은 사실 두려움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생각이자 전혀 수련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악은 틈을 타 제 집착을 키우고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집안의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대법서적 등을 어찌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워져 사악이 당장이라도 집 문앞에 들이닥쳐 코앞까지 왔고 곧 붙잡혀 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 상태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쿵쥔거렸습니다.

이때 사부님의 법이 뇌리에 울렸습니다.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정진요지2-마지막 집착을 제거하자)

순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장 가부좌를 틀고 정념을 발하여 가장 먼저 두려움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이

고 나를 위한 것이니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념으로 구세력의 박해를 부정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이고 사부님께서 관할하시니 그 외 모든 안배는 다 부정하고 전부 원치 않으며 일체는 법 속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걷는 길은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이고, 제가 하는 일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일입니다. 정념을 발하고 나니 당시 사악이 정말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그 두려운 물질이 다시 두려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법공부 팀 수련생을 불러 다른 법공부 팀으로 가서 제 상태를 교류하고 수련생들에게 정념을 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집은 자료점이라 절대 사악의 교란이나 파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념을 발한 뒤 기사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며칠간은 자료를 조금만 만드세요. 프린터 3대 중 한 대만 놔두고 두 대는 일단 우리집에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오고요. 자료점에 완성된 자료는 먼저 내보내고 물건들을 잘 정돈해 두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며 당분간 이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계속 정념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꾸준히 법공부를 많이 하고 정념을 많이 받으며 안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한다는 기초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잡혀갈까 두렵고, 감옥에 갈까 두렵고, 고생할까 두렵고, 이럴까 저럴까 두려워 머릿속이 온통 제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남을 먼저 위하고 자신을 나중에 생각하는 신우주의 표준에 어긋나는 것이니, 저는 그것을 제거하고 해체하여 절대 다시는 원치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프린터에 문제가 생겨 뽑힌 자료의 글씨가 쏠리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쏠려 아예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원을 끄고 프린터와 소통한 뒤 다시 켜보니 인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장 뽑기도 전에 에러 표시등이 켜지더니 아무리 만져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 두 대는 아직 제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은 백 퍼센트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두려운 물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니며 에러 표시등이 켜진 건 제게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그 프린터 두 대를 가져올 용기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가져와야 하며 절대 사악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가르켜 주신 바른길, 하늘로 통하는 큰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곧장 기사 수련생에게 전화해 “당신 집에 둔 옷 두 벌을 오는 길에 가져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좋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오기 전 제게 “두 벌 다 가져갈까요?”라고 재차 묻기에, 저는 단호하게 “다 가져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정념은 아주 강했고 두려운 물질은 강력한 정념에 해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운 물질이 제거되고 심성이 올라오자 스스로 정말 큰 계단을 하나 올라선 것을 느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에, 대법 법리의 지도하에, 수련생들의 정념의 도움과 함께 교류하며 저는 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사 수련생과 노수련생도 말했습니다. “당신만 제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고예요.”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며 착실히 수련하고 세 가지 일을 계속

잘하며 함께 협조하여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해 낼 것입니다.

이상은 제가 착실하게 수련하는 과정에서 얻은 얇은 체험입니다.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사람을 구하는 과정도 마음을 닦는 과정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저는 새로운 환경에 와서 일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은 도심이라形形色색의 사람들을 만났기에 진상을 알리기가 비교적 수월해서 적지 않은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환경이 비교적 좋아 산을 등지고 바다와 가까우며, 주민 대부분이 사방에서 집을 사서 노후를 보내러 온 사람들입니다. 시내에서 온 교사, 의사도 있고, 대기업 고위 간부, 군대에서 전역한 노(老)간부 등도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고급 인력이자 부유한 사람들이고 잡다한 무리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안배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며, 어쩌면 이곳에 구원이 필요

한 인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래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진상을 알린 약간의 체험을 꺼내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고 사부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막 왔을 때 지리도 낯설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부님께서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으므로 당신은 이런 소원만 있으면 된다”(전법륜)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이므로 어디를 가든 적극적으로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자 사부님께서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 곁으로 안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진상을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기에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걸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와 대법 진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법의 진상을 깨닫고 기꺼이 삼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사부님께서 하신 “지금은 사람을 구도하는 것 역시 아주 어렵기에 당신은 그들의 집착을 봐가며 해석해야 한다”(북미 순회 설법)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상대방의 집착에 순응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대부분 삼퇴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는 교사, 의사, 대학생, 군대의 노간부, 공안 인원, 대학교수, 배달원, 경비원, 청소부가 포

함됐으며 심지어 기독교 신자나 기타 신앙을 가진 사람 등도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사악한 당에 대해 뻗속 깊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독 백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모두 무력감을 느끼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으며, 중공 악당이 중국인을 독살하려 하고 공산악령이 중국인을 자신과 함께 순장시키려 한다는 진상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바닷가에 갔다가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걸어보니 그는 북방에서 노후를 보내러 왔고 이전에는 기술 관련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기술직을 하는 것이 관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보세요, 지금 부패하지 않은 관리가 없어서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의를 표하며 체제 내에 있는 동창이 그에게 해준 말을 꺼냈습니다. 중공 악당의 체제 내부는 진작에 썩어 문드러졌고 민중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많은 부패와 혼란상은 아예 입 밖에 낼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는 홍콩에 갔을 때 파룬궁수련생이 대법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커다란 현수막에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공산당은 악행을 일삼아서 하늘이 당장 그것을 멸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따라 많은 대법 진상을 알려주었고 삼퇴를 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당한 적이 없어서 사악한 당의 조직에 들어간 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청단과 소년선봉대에 가입할 때도 생명을 악당에 바치겠다고 독한 맹세를 했는데 이 독한 맹세

는 실현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선량하고 선악을 명백히 구분하는 좋은 분이니, 우리는 조상을 찾아 뿌리로 돌아가 신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뿌리가 있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흔쾌히 삼퇴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배달원 청년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시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도 비교적 쉽게 진상을 알릴 수 있는데, 자신의 정념(正念)이 강하고 감히 입을 열기만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두 그들에게 삼퇴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한번은 한 배달원 청년이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듣고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멋쟁이 청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요즘 배달 일은 할 만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요즘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올해 번 돈이 작년보다 3분의 1이나 줄었고, 교통경찰이 또 수시로 차를 단속해서 벌써 스쿠터를 두 대나 몰수당했습니다. 중국 서민들은 정말 너무나 고달픕니다. 날마다 그 탐관오리들을 위해 소와 말처럼 일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돈을 얼마 벌지 못해 전부 탐관오리들에게 빼앗기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고 중공이 악행을 일삼으며 대법을 박해하고 좋은 사람을 박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속담에 선에는 선의 응보가 있고 악에는 악의 응보가 있으며 천도는 돌고 도는데 하늘이 누구를 용서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도 동의를 표하며 몇 년 전에 독 백신을 맞은 탓에 자신의 몸도 예전만큼 좋지 않게 되었다며, 공산당은 이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기도 파룬궁 대열에 들어가고 싶고 언제든 공산당을 타도하면 자기도 가서

참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파룬궁에는 무슨 대열 같은 것이 없고 누구를 타도하러 가지도 않으며 하늘이 악당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기만 하면 신께서 당신을 보우해 주실 것입니다.” 그도 아주 기꺼이 삼퇴를 했습니다.

또 한번은 갓 퇴직한 남성을 만났는데 그는 대학 졸업 후 줄곧 공안국에서 일하다가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공안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면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없었고 후방 지원을 해서 외부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수십 년간 공안을 했는데 왜 승진하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국토국의 한 부서 주임으로 승진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아주 수입이 짭짤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승낙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갔습니다. 지금 그는 체포됐습니다. 정말이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자기 주변에 관리로 있는 친구들은 전부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공안국의 정국장, 부국장도 다 체포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공안국장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그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오늘 체포된 것이 바로 응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에 따라 그에게 대법 진상을 알려주고 삼퇴

를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대법의 제도를 기다리고 있고 사부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배해 놓으셨으니, 제자들이 사람의 관념을 타파하고 밖으로 나가 그 인연 있는 사람들과 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 만난 노신사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는 과정은 마음을 닦는 과정이기도 하고,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안으로 찾는 과정이기도 해서 각양각색의 심성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은 제가 바닷가 공원에 갔다가 옷차림이 단정한 한 노신사와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보고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바닷바람이 꽤 매섭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와서 바람 쐬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더니 단숨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학 입학시험이 회복되던 해에 대학에 합격했고, 그 후 기관에서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느 병원에서 원장을 맡아 퇴직할 때까지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첫 반응으로 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원장이란 우리 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마침 우리 시의 3대 병원 원장들이 모두 쌍규(雙規, 당내 조사)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체면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 시의 세 개 큰 병원 원장들이 다 붙잡혔습니다, 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패 분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기분이 상해서 그것은 개별

적인 일이라며, 자신은 어떠어떠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흥분하며 몹시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계속 다투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렇게 거만하게 구니 아마도 구제 불능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돌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노신사는 제가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보더니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이 일을 처음부터 다시 회상해 보며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근원이 제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쟁투심, 질투심, 남을 무시하는 마음, 자비심이 없는 것, 공산당 당문화(黨文化) 사상 등 수많은 집착심을 찾아냈습니다. 그를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저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사람 마음을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만약 기회가 되어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시 그에게 진상을 알려 그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며칠 뒤에 노신사를 또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산책하십니까?”라고 묻자 그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장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는 분명 저를 이미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뒤이어 계속 산책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나누며 화제를 찾아 그에게 진상을 알렸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학생이 교사를 비판하고 지식인을 ‘냄새나는 9번째 부류’로 몰아붙인 일 등을 꺼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것들은 모두 마오(毛) 노인네가 지은 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만약 문화대혁명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비판받아 돌아가셨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이 말이 아주 듣기 싫었던 모양인지 더 이상 저와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상은 여전히 알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또 방금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한 번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그가 마오가 좋지 않다고 말했던 것은 이 사람이 생각만큼 그렇게 진상을 알리기 어려운 사람이 아님을 의미했기에 저는 꼭 그를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부님께서 저를 한 번 도와주셨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제가 산책하다가 노신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 저는 대단히 기뻐하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또 만났네요. 참으로 인연입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선량하고 사람이 그렇게 좋으시니 틀림없이 좋은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 있는 사람을 제도하시고 선량한 사람을 점지해 주십니다! 지금 천재지변과 인재(人災)가 이처럼 많은데 사람은 재난 앞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선생님을 평안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욱이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되지 마시고 조상을 찾아 뿌리로 돌아가 신의 자손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당원인지 묻자 그는 “당연합니다. 입당한 지 벌써 50여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표명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입당하실 때 생명을 무신론에 바치겠다고 맹세하셨지요. 이 독한 맹세는 실현되는 것이고 마르크스는 선생님을 끌고 가 순장시키려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너무 큰 손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그 독한 맹세를 철회하셔야만 비로소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좋습니다. 고맙습

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에게 좋은 몸과 좋은 외모를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제가 나가서 진상을 알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인정하고 제가 알린 진상을 받아들였으며, 많은 사람이 삼퇴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법공부를 잘하고, 명예, 이익, 정(情) 등 법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제거할 것이며,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인연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구하여 하루빨리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스(合十)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14억 인구’는 사실인가 아니면 정치 구호인가?

— 인구라는 국가의 기본 실태를 명확히 하다 —

글/ 루스(陸實)

[명혜망]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은 본래 상식이어야 하지만 오늘날에는 미제 사건이 됐다.

1. 미중 수치에 존재하는 1억 3000만 명의 차이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처음 중국 내륙에서 대폭발해 약 4년간 지속된 이후를 포함해, 수년간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굳게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의 인구학자 이푸셴(易富賢, 중국 인구 딜레마를 연구하는 세계적 전문가 중 한 명)은 그의 신간에서 약 12억 7000만 명이라는 답을 제시했다.

양측의 차이는 약 1억 3000만 명으로, 멕시코 인구 하나가 뜬금없이 더 생긴 것과 맞먹는다. 만약 미국 인구학자가 말한 수치가 맞다면, 이는 통계 오차가 아니라 중국이 국가로서 가장 기초적인 국가 실태에서 세계를 기만했으며, 필시 자신마저 기만한 것이다.

2. 미국 인구학자의 증거

백신:

이푸셴의 증거는 결코 현학적이지 않으며, 모두 중국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통계 수치에 놓여 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24시간

내에 반드시 결핵 예방 백신(BCG)을 접종해야 하며, 다회용 백신 병은 개봉 후 30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므로 한 병은 실제 1명의 아기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출하 승인된 백신은 약 580만 병이었는데, 중공 당국이 발표한 출생 인구는 1400만 명을 넘었으니, 백신 한 병을 2.4명의 아이에게 나눠준 셈이 된다. 백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장부와 층층이 제출되는 보고서다.

동일 집단 아이들의 축소:

같은 집단의 아이들을 다시 살펴보자. 2000년 중국 본토 당국에 등록된 출생아는 약 1770만 명이었다. 10년 후의 인구조사에서 이 10세 아동들은 약 1440만 명만 남았다. 2015년 중학교 졸업 연령이 됐을 때는 약 1420만 명만 남았다.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낮은 중국에서 350만 명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국제 이주민 재고’ 데이터, 즉 중국에서 태어나 당시 해외에 거주하던 인구수는 2000년에 약 580만 명, 2015년에 약 950만~1000만 명(연도별 수정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었다. 두 수치를 빼면 15년간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출생 인구는 약 400만 명 증가했다. 즉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해외로 순이주한 인구가 대략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가 보기에 0~12세 아이들은 미성년자에 속한다. 만약 이민을 간다면 대개 나이가 어려 문화 융합과 언어 학습 능력이 뛰어나 해외의 생활 습관, 문화적 분위기, 언어 환경, 교육 방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커서도 해외에 남아 발전하기 쉬워 보

통 부모를 따라 함께 이민을 간다. 그렇다면 이 400만 명의 송출 이민자 중에 설마 중국 공식 수치에서 2000년에 태어나 2015년까지 중국에서 사라진 350만 명의 아이들이 포함돼 있단 말인가? 350만 명의 아이들이 50만 명의 성인(7대 1의 비율)과 함께 이민을 갔을까?

영유아 및 아동 송출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은 답은 아마도 아주 간단할 것이다. 이 350만 명의 아이들은 애초에 태어난 적이 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치라는 것이다.

숫자는 왜 뜬금없이 생겨날까?

이푸셴은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돈이 사람 머릿수를 따라가니 머릿수가 ‘제조’된다는 것이다.

교육 경비가 학생 수에 따라 중앙에서 배정된 후, 학교는 학생 수를 2~5할 허위 보고한다.

신농합(신형농촌합작의료)에서 분만 비용을 환급해 주자, 병원의 출생 등록이 덩달아 부풀려졌다.

거품이 들어간 이 기본 데이터들은 다시 인구조사를 ‘보정’하는데 쓰이고, 인구조사는 다시 돌아가서 이 데이터들을 뒷받침해 준다.

거짓말에 익숙해져 사람들이 단순히 ‘거짓말’을 목적 달성을 위한 정상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이는 자기 증명적인 폐쇄 루프다. 누구의 지시도 필요 없이 모든 단계에서 수치를 밀어 올릴 동기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통계 조작 전과

중국 통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다음 사례들은 대부분 당국이 자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 랴오닝성 재정 조작: 2017년 초, 당시 랴오닝성 성장이었던 천추파(陳求發)는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내 재정 데이터 조작이 만연했으며, 일부 시와 현에서는 재정 수입을 20% 넘게 부풀렸다고 인정했다. 랴오닝성이 이후 발표한 GDP는 절벽처럼 떨어졌다.

- 네이멍구와 텐진 빈하이신구 ‘물기 짜내기’: 2018년 초 네이멍구는 2016년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를 약 40%, 재정 수입을 약 26% 허위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텐진 빈하이신구는 2016년 GDP를 1조 위안 이상에서 약 6650억 위안으로 낮춰 3분의 1 이상 축소했다.

- ‘인조’ GDP: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7년 당시 랴오닝성 당위원회 서기였던 리커창(李克強)은 미국 대사에게 중국의 GDP 수치는 ‘조작된 것’이라 믿을 수 없으며, 자신은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을 더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훗날 외부에서 말하는 ‘커창 지수’다.

-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2023년 6월, 중국 당국이 발표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라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두 달 후, 국가통계국은 ‘통계 방법 최적화’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발표를 중단했다. 베이징 대학교 부교수 장단단(張丹丹)은 기고문을 통해 ‘탕핑(躺平)’과 집에서 부모에게 얹혀사는 청년들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이 46.5%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데이터 발표가 재개됐을 때, 기준은 이미 재학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바뀌

어 있었다.

• 코로나19 사망자 수: 2022년 12월 방역 해제 후, 중국 당국은 약 한 달 동안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을 약 6만 명만 보고했으며 매우 좁은 사망 인정 기준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러 국제 연구는 초과 사망, 부고, 화장 수요를 근거로 봉쇄 해제 후 중국의 사망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법칙은 거듭 반복된다. 수치가 치적, 지원금 또는 체면과 관련되기만 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복종해 인위적으로 수정된다. 인구 데이터는 재정 이전, 교육 지원금, 지방 편제, 대국의 이미지와 직결되는데 어찌 예외일 수 있겠는가? 눈앞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중공 통치하의 중국에서 중국인들은 이미 이 법칙에 익숙해졌으며, 이 역시 중공이 강력히 추진하는 ‘정글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대가

‘인조 인구’라는 이 일의 대가는 당혹스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는 모든 정책의 분모다. 분모가 허위로 높아지면 고령화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노동력 절벽이 지연되며, 연금 부족액이 은폐되고,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 당국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일찍, 더 맹렬하게 찾아온다. 베이징이 이를 근거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잘못 그려진 지도를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외부 세계가 이를 근거로 중국을 평가하는 것 역시 과대평가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다. 이푸셴은 이러한 왜곡이 베이징의 과도한 자신감을 조장하고 워싱턴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는데, 이 판단은 정곡을 찔렀다.

한 정부가 GDP에 물을 타고, 실업률을 사라지게 하며, 사망 통계를 다시 쓸 수는 있지만, 인구는 모든 수치의 기초다. 기초가 일단 불안정해지면 그 위의 모든 층이 무너질 수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보기 좋은 숫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하고, 과감히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며, 숫자가 흥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계 시스템이다. 그 전까지 ‘14억’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정치 구호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 2026년 대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85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771만 2866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